

(8) 주차 학습내용

관련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수업내용)			
자연적 관광자원		1.1 해양관광자원			
수업 내용	관련지식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의 개념 ○ 해양관광자원의 특성 ○ 해양관광자원의 분류 			
	실습내용 (실습절차 및 지도내용)	없음			
	실습결과 및 피드백 방안	없음			
	이론수업내용 (해당주차에 이론수업이 포함되는 경우 작성)				
준비물 (재료 및 도구)	재료(도구)명	규격	필요량	비고	
	전자교탁		1		
	빔 프로젝트		1		

해양관광자원

해양관광의 개념

해양은 지구 표면적의 71%를 점유하고 있어 인류의 경제, 사회활동에 있어 해양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관광은 녹색자연을 대상으로 보호, 보존하자는 취지하의 녹색관광시대(Green Tourism Age)에 이어 푸르른 바다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관광활동을 도모하게 하는 청색관광시대 (Blue Tourism Age)로 이어져 비로소 다양한 관광활동을 이루는 시대에 이르렀다.

해양관광은 사회경제적 영향에 있어서 일반관광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자원이나 입지적 환경 등에서 일반관광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전제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해양관광은 해양이라는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예컨대 해수욕은 일정수준의 수온과 완만한 경사 그리고 백사장과 청정한 해역을 필요로 하고, 요트나 보팅 등의 활동을 위해서는 넓고 안정된 수면이 필요하다.

둘째. 개발 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해양관광이 이루어지는 연안지역은 육지와 바다가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변화에 민감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육지의 폐기물 배출지로서 취약한 환경구조로 되어있다.

셋째. 접근성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연안은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접근성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특히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은 환경수용능력과 함께 해양관광지의 개발규모가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해양관광자원의 특성

해양관광자원은 대부분 관광적 성격이 강한 자원으로서 바다를 중심으로 해저, 해변, 해안 등에 매우 넓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해양관광활동을 하는데에는 관광자원적 조건 중에서 특히 자연자원적 조건이 양호해야 활성화될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해양관광자원의 분류

1. 해수욕장 :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설이 되어 있는곳을 해수욕장이라고 하였다.

2. 마리나 : 마리나에 대한 통일적인 정의는 없으나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는 라틴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으며 ‘해안의 산책로’ 라는 뜻이 있다.

3. 도서(섬) : 도서의 개념은 사전적, 법적, 정책적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다. 사전적 정의는 만조 시 수면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면에 둘러싸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육지부 외의 모든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보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도서를 대양, 내해, 호소, 대하 등의 수역에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갯벌 : 갯벌이란 조류로 운반되어 온 미세한 흙들이 파도가 잔잔한 해안에 오랫동안 쌓여서 생기는 평탄한 지형을 말하는 것이다. 즉 갯벌은 조류에 의해 운반되는 퇴적물이 쌓여 이루어지는 해안 퇴적지형이다.

갯벌의 중요성 - 인류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 물새의 서식처이다. (갯벌서식 물새는 120여종이다.)

- 환경적 가치

5. 협곡 : 양쪽의 곡벽이 급경사를 이루어 곡폭이 좁고 깊은 골짜기를 말하며, 이와같은 지형은 횡단하는데 곤란하여 교통에 장애를 준다. 대륙에 있는 대고원의 가운데서 발달한 대규모의 절벽을 일컫는다.

6. 해협 : 해협은 육지사이에 끼여 있는 좁고 긴 바다로 수도, 목, 셋바다 라고도 한다.

7. 곶 : 바다에 돌출한 육지로, 보다 규모가 크면 반도라 부른다. 육지가 침강하면 골짜기는 만이 되고 산줄기가 반도나 곶이 된다. 즉 만은 육지 쪽으로 속 들어간 해안을 말하고, 곶은 바다쪽으로 튀어나온 육지의 끝부분을 말하며, 그 규모가 크면 반도라고 부른다.

한국의 대표적인 곶으로 간절곶, 등산곶, 장산곶, 호미곶 등이 있으며, 곶과 같은 의미의 단(端) 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수단, 어량단, 수원단 등이 있다. 간절곶은 동해안에서 맨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곶으로 알려져 있다. 영일만의 호미곶 보다 1분 빨리, 강릉의 정동진보다 5분 빨리 해돋이가 시작된다.

8. 폭포 : 강물이 수직으로 흐르는 상태로서, 유년곡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침식이 진행되면 폭포는 후퇴하여 결국 없어진다.

세계에서 유명한 폭포로는 나이아가라폭포 외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국경에 있는 이구아수폭포, 아프리카의 빅토리아폭포 등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베네수엘라의 앙헬폭포는 약 970m, 미국의 요세미티폭포는 790m가량이다. 한국의 3대폭포는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이다.

9. 하천 : 육지 표면에서 대체로 일정한 유로를 가지는 유수의 계통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큰 것을 강, 작은 것을 천 또는 수로로 표현하지만 오늘날에는 섞어 쓰는 경우가 많다. 보통 발원지로부터 거리가 멀고 유량이 많은 곳을 강이라 부르고, 강 본류에 유입되는 물줄기를 천이라 지칭하고 있다.

한국의 4대강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